

종합최고상
 광주송원초등학교
 동아여자중학교
 광주예술고등학교

미술

					
신혜원 (송원초2)	김두나 (진남초4)	이참비 (광주대성초6)	최민주 (신창중3)	김정은 (광주예고2)	김성하 (1999년생)

시	산문	플루트	트럼펫	첼로
				
이소정 (송학초6)	손유빈 (광주경신여고3)	김민지 (대성여고3)	김여령 (광주조봉초5)	조진형 (전남예고2)
				
장신행 (전남예고3)				

성악	바이올린
	
이호준(광주교대광 주부설초2)	최봄 (금부초4)
	
정승민(광주교대광 주부설초6)	김사랑 (광주예고2)
	
김윤서 (운리초4)	강유진 (동아여중2)

피아노

					
정연우 (문정초2)	허소율(순천하늘샘 국제기독교학교4)	이지희 (전주서일초6)	장서운 (목포중앙여중1)	이동화 (광주예고2)	이신하 (광주예고3)

한국무용전통	현대무용	발레클래식	발레창작	합창	김명지 외 60명 (광주송원초)
				관악중주	이혜원 외 8명 (초등4개교연합)
김민경 (광주예고3)	류인웅 (송의고2)	신연규 (조선대부속중3)	이아인 (동림초2)	국악사물놀이	공민규 외 10명 (광주송원초)
				관현악합주	고대는 외 74명 (광주송원초)

‘최고상 작품 발표회·시상식’ 24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순수한 시각, 뜨거운 열정. 광주일보가 1956년부터 매년 열고 있는 전국예술종합대전 ‘호남예술제’는 전국 예술 꿈나무들의 등용문이자 축제다.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열린 올해 행사에도 전국에서 80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무용, 음악, 국악, 합주, 미술·작문·만화와 일러스트 부문에서 열린 경쟁을 펼쳤다. 국악·음악 분야를 선보이는 2부에서는

오는 24일 최고의 기량과 재능을 재능을 보여준 최고상 수상자들의 무대가 펼쳐진다. ‘제62회 호남예술제 최고상 작품 발표회’가 오후 1시부터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광주시 서구 쌍촌동)에서 열린다. 1부에서는 발레창작 부문 이아인(동림초 2년) 학생과 한국무용전통 부문 김민경(광주예고 3년) 학생이 무대에 오른다. 국악·음악 분야를 선보이는 2부에서는

사물놀이 광주송원초(공민규 외 10명), 피아노 정연우(문정초 2년), 성악 김사랑(광주예고 2년), 성악 이호준(광주교대부설초 2년) 등 12명의 연주를 감상할 수 있다. 로비에서는 미술·간만화·시·산문 최고상 작품이 전시된다. 2부가 끝난 후에는 최고상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062-220-054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산문

5월

김민지
(대성여고 3)

할머니는 물건마다 얼굴이 있다고 했다. 아무리 오래된 것이라도 사람처럼 관심을 주고, 정성스레 닦아주면 다시 쓸 만한 물건이 되는 거라고 말하시곤 방 곳곳에 쌓여져 있는 물건들을 손수건으로 수시로 닦았다. 엄마는 오래전부터 할머니의 짐들을 버리려고 안달 나있었다. 녹이 슬어 쓰지도 않는 양은 바가지, 나사가 빠져 잘 닫히지 않는 작은 함 등 할머니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물건들은 세월의 때가 끼어 언제나 엄마의 눈엣가시였다. 엄마는 할머니에게 전부 버리면 안 되겠냐고 사정을 했다. 냄새가 나는 것도 같고, 집안 분위기를 망치는 것 같아 뭐든 새로 사주겠다고 했지만 할머니는 엄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옛날에는 쓰레기라는 말이 없었어야. 뭐든 다 소중하고, 구멍이 뚫리면 기워 쓰는 게 태반이었는데 지금은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 버리는 것 같아. 함께 늙어가는 처지에 버릴 수가 없어가지.” 할머니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엄마는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하였다. 대신 엄마는 할머니의 물건들을 차곡차곡 쌓아 장롱 속에 넣어 버렸다. 사실상 가족들에게 버려진 취급을 받는 물건들은 햇빛을 받지 못해 날이 갈수록 자글자글하게 주름이 생겼다. 할머니는 그 전보다 더욱 물건들을 열심히 닦았다. 나는 할머니

가 모으는 물건들에게 관심이 없었다. 그저 할머니의 나쁜 습관이라고 생각만 했을 뿐 내색하지 않았다. 그러다 5월의 내 생일, 할머니에게 나는 작은 반진고리를 받았다. 할머니의 물건 중 가장 오래된 반진고리는 색이 바라고, 끝이 뭉개져 친구들과 부모님에게 받은 선물과 비교가 되었다. 나는 아마 이제 물건을 모으는 것에 질린 할머니가 남들에게 하나씩 나눠주며 처리하는 것인 줄 알았다. 할머니는 혼란스러운 내 표정을 보며 말했다. “나는 너라도 이것의 소중함을 알았으면. 이걸 할머니의 엄마가 물려준 것인데 이걸로 내 옷은 물론 네가 태어났을 때까지 찢어진 옷을 매웠다. 새것도 좋지만 뭐든 버리는 습관을 가지면 안 돼. 작은 것에 소중해야 자신도 소중히 대할 수가 있어. 물건들에게도 얼굴이 있으니까.” 나는 반진고리를 열어보았다. 얇은 바늘과 실이 가지런히 들어있었다. 나는 화려하게 포장되어 있는 선물들보다 작게 반짝거리는 반진고리가 더 소중해 보였다. 나는 옷소매로 반진고리를 정성스레 닦았다. 반진고리가 열게 웃는 것 같았다. 5월의 내 생일에 나는 가장 소중한 것을 알았다. 다음 5월에도 그 다음 5월에도 반진고리는 웃고 있을 것이다.

시- 고등부

들꽃

손유빈
(광주경신여고3)

높은 빌딩이 가끔 내려다보는 서촌의 작은 책방 하나 초여름을 머금은 햇빛이 책방 마루 위로 선명하게 부서지면 노인은 몇 페이지 되지 않는 인생 위의 먼지를 정성들여 정리한다 팬을 들어 누렇게 변색된 원고지 위 넘실대는 환한 햇빛만큼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하지만 몇 구절의 문장도 건지지 못하고 주름진 눈가에 걸려오는 노곤함만 투박하게 털어낼 뿐이었다

책방 옆 아무렇게나 피어난 들꽃은 책 속 하나의 이야기이고 싶었던 방랑하는 노인의 삶

길어진 해가 잠에 들기도 전 책방 셔터를 내리는 노인의 손끝에 어디에서 다친 건지 뭉개진 들꽃 하나가 휘감아왔다



시- 초등부

할머니

이소정
(송학초6)

계절이 지나도 지지 않는 꽃이 할머니 얼굴엔 피어있었다. 나는 나이 꽃이라고 생각했다. 엉거주춤 휘어진 매무새 없는 할머니의 뒷모습엔 살아온 날이 있었다. 나는 외로움이라고 생각했다.

애기똥풀 잔잔하게 핀 발독길너며 질퍽거리는 고무신을 끌고 상추를 만질 때 나는 문득 소녀를 본 듯했다.

스스로 꽃이면서 여전히 꽃을 찾는

초록이 무성하고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던 날 나이 꽃은 하늘 꽃으로 다시 피어났다.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 속에서

